

종교인의 가정 생활과 가치 지향에 관한 연구

-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life & value orientation of the people
with the deferent religious affiliations

- On the center of Buddhist, Catholic & Christian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李貞德

강사 崔銀卿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Doog-Guk University

Prof. : Lee Chung-Duk

Lecture : Choi Eun-Kyung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n multi-value, multi-religions situation, we need to the research on the function of relig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y life & value orientation of the people with the deferent religious affiliations.

The out line of the research is as fallow:

- 1) The religious life of the people with the deferent religious affiliations consists of three factors: value & attitude, religious belief and family life. 2) Among these different religions, Christian has the strong intention.
- 3) In general, women has the strong nature of religion more than man. 4) Whenthe husband & wife are same religions, they get more intention of religion.

I. 서론

한국의 종교 상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우리 나라 종교적 상황의 가장 큰 특색인 多宗教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 사람의 매

우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종교적 성향이다.

한국인은 같은 儒教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외래 종교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 종교가 한 개인의 신념 체계이자 궁극적 가치 체계를 다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의

내면생활의 가치관은 여러 종교의 정신 체계에 매우 관용적이어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종교적 가치관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누구나 대인관계의 位階秩序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儒敎的이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만남을 因緣 緣起로 해석하는 人生觀은 佛敎的이며, 사랑을 인간 삶의 원칙과 행동의 최고 지침으로 여기는 行動 哲學은 基督敎的이고, 내일을 예측하는 運命觀은 巫俗的이다(윤이후 1982).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은 급속한 종교 인구 팽창을 야기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자료 1991), 이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정책 시행 이후 1964년부터 1989년까지의 우리 나라 인구 성장률이 약 22%인 것에 반해 종교 인구는 25년 동안 약 4천 5백만으로서,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권규식 1993).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의 量的 팽창에 따른 質의 문제 및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종교 또는 종파간의 사회적 마찰은 물론 가족내 종교 갈등으로 인한 가족간의 마찰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의 본래적 기능이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인 점을 상기할 때, 우리 나라의 종교 현상에 대한 타개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의 종교적 기능은 첫째, 인간의 일생에서 겪는 출생·돌·결혼·상례 등 通過 儀禮에서의 儀式, 둘째, 설·추석·조상숭배 등 年中行事 때 가정에서 선택하는 행사 양식으로의 기능, 셋째, 가정에서 당면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 처 기능, 넷째, recreation 기능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정의 기능은 (1) 정서적 안정의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성적 기능 (4)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 (5) 노약자 보호의 기능 (6) 종교적 기능으로 정리되어 왔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종교적 기능이란 주로 가족원, 특히 미성년 자녀의 도덕적 품성 함양 기능과 조상숭배 기능을 뜻하는 것

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기능은 산업 사회 후반으로 오면서 차츰 가족 이념(family ideology)으로서의 성격이 락기 시작하였는데, 가족 이념이란 개념이 가족학에 적극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 사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였다(이정택 외 1인, 1985).

생활 철학으로써 가족의 행동을 이끌어 주던 有形·無形의 家訓이 사라지면서 가족을 통솔할 심리적 지주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 가족에게 넓은 의미의 종교는 그 가정 이념 체계의 주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가족에게 많은 변화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편, 새로운 기대 즉,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근간으로서의 건강한 가족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양적으로 가속적인 확대 일로에 있는 우리 나라 종교 행태가 가족 이념 체계로서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전체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종교 생활 내용 및 가치 지향성은 어떠한가?
- 둘째, 종교인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종교 생활 내용 및 가치 지향성은 어떠한가?
- 셋째,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 내용 및 가치 지향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의 기능

종교란 '삶의 궁극적 기반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the ultimate foundation of life)'으로서 단지 개인의 삶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진화에 관계된 현상이며, 전 사회, 문화적 힘으로서 작용한다(길희성, 1987). 그러므로 종교는 문화의 한 부분이며 의례라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서 의미가 조직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서 신자에게 자신의

현재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의미의 체계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보다 큰 의미는 문화 체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곧 한국에서의 기독교나 불교의 교리와 의례는 한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 체계의 틀 안에서 의미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정진홍 1992). 길희성(1997)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는 삶의 성스러운 기반, 영원 불변한 기반을 추구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 실재에 대한 추구를 통해 종교가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종교 인구는 세계적으로 급성장 하였고, 다양한 종교를 추구하는 활발한 종교 행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종교 사회를 배경으로 특수한 관습과 관행으로 삶을 지배하던 전통 사회의 공동체 윤리는 허물어지는 사회의 도덕적 무질서 상황에 처해 있다. 종교가 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가치관 정립의 분야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철저한 다종교 상황 속에서 종교들은 분리 신화에 머물러 있으므로서 오늘의 한국 사회의 가치관 정립에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가 '삶의 본질적 자유의 달성' 보다는 '고정 불변적인 구속'으로 한 개인을 전락시킬 우려가 높음이 지적되고 있다(이정덕 외 1인 1995). 개인적 구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를 향한 도정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즉 사회의 각 영역을 이끌어 가는 신념 체계가 되어야 하는 종교가,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같이 급속도의 도시화 과정에서 벗어난 도시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한국의 종교적 상황

형이상학과 종교의 쇠퇴라는 세계의 일반적 추세와는 달리 한국의 종교는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양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종교 인구의 증가율은 세계 역사상 놀라운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1964년에서 1989년까지의 25년 동안 종교 인구수

의 증가는 연평균 51%의 증가로서 이것은 인구 증가율(2.2%)을 훨씬 상회하였다(권규식 1993).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종교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크게는 불교, 유교, 개신교, 카톨릭교,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이슬람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형태의 민간 신앙 습속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교파, 종파 등이 이들 종교 가운데서 나뉘어져 있다(윤이흠 1984, 1985, 1986; 정진홍, 1990).

각 종교별 인구 구성은 불교·기독교·천주교·유교가 각각 51.2%·34.4%·10.8%·1.8%로서 주로 기독교와 불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통계청 1991).

현재 정부에 등록된 종교 단체는 2백 89개인데 분제는 등록된 단체 보다 훨씬 많은 미등록 단체가 있으며 이들로부터 많은 분제들이 사회적으로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일보 1994, 2. 22).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종교 인구 증가 현상을 배경으로 다종교, 다교파, 다종파 상황의 전형적인 양상을 띤 철저한 다원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종교의 급성장과 종교 다원주의 사회가 형성된 배경은 종교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종교 인구의 급성장 및 종교 다원주의의 배경은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혼동 속에 나타난 사회적 불안정과 불안감, 아노미를 종교를 통해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종교를 찾은 것으로 유추된다. 이것이 1970년, 1980년대의 급격한 종교 인구의 급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감에서 추구한 종교적 성향은 성령 운동을 통해 세계적 규모로 급성장한 순복음 교회와 영락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정창수, 김신열 1993; 홍욱화 1994). 또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가족 형태와 가족 의식이 대가족에서 소규모의 핵가족화 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었으며, 이때 절이나 교회, 성당 등의 종교 단체는 종교인에게 가족과 같은 심리적 준거집단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제

공해 주었으며, 종교적 신념 체계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불안감을 가진 개인에게 자아 정체감을 확립시켜 주는 등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 것이다(이정덕 외 1인, 1995).

지정학적 위치상 반도국의 특성인 열정적인 국민성이 반영된 종교 생활로서 각 종교들에서 새벽기도, 철야 기도, 신앙 수련회 등의 종교 활동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특히, 개신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 특유의 종교 행사 부흥회, 성령 강림 운동, 통성 기도, 손뼉 치며 찬송 부르는 열정적 분위기는 매우 감정적인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다(이정덕 외 1인 1995). 한 조사 결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등의 실천적 유교인이 91%로 나타났지만, 본인들은 자신을 다른 종교인으로 혹은 무교인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들의 가치관 및 종교적 신념 체계는 의식적·부의식적으로 매우 복합적, 다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유이흠 1982). 이와 같은 종교성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추구의 특성과 함께 한국적인 다종교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원들의 종교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종교 다원주의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다원주의 상황은 어떤 분화된 제도적 영역들(예를 들면, 종교, 가족, 여가, 예술)이 공적 영역(예를 들면 경제, 정치, 법)의 지배적인 제도들로부터 분리되고 사적 영역화 하는 종교의 사사회를 초래하였다.

다종교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 종교 집단에의 연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종교 집단에의 배타적 태도는 강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종교적인 배타주의는 종교간에, 종교 내에 갈등을 만들어 내는 중심적인 성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는 종교성의 강화 혹은 심화는 종교적 배타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개신교 안에서의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분위기가 오히려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조사를 보면 한국 교인의 90% 정도가 그 신앙

구조에서 보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적인 신앙 태도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식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 개신교회의 신앙적 보수성 자체가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표현한다. 한국 개신교 교회의 배타성은 타종교에서 수행하는 의례에 대한 거부 반응에서도 기인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제사 문제이다(이원규 1993)

종교 다원주의 상황의 결과로 나타난 의식(意識) 성향의 차이에 의한 갈등은 비단 종교간에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간에 의식 성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 사이의 신앙관의 현저한 차이가 정치, 경제 상호 의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교파들간의, 개인들간의 대립적인 이념과 태도들이 한국에서의 양극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체로 진보-보수로 이분화 되고 있고, 그 관계는 첨예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이원규 1992).

이와 같이 종교 다원주의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종교간의 교파간의 교인간의 갈등과 긴장적인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다원주의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나타난 종교 갈등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人土: 사망시 개신교, 카톨릭, 불교 그리고 때로는 유교의 종교 의례들을 모두 행하도록 된 人, 각 종교마다 종교적 휴일을 얻기 위해 충돌한 人, 군중, 경찰 중부 등의 참여와 직책 분배로 인한 종교 갈등, 국정 교과서의 기독교적 성향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 단군 성전 건립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 등 사실상 사회 문제화되지 않은 사소한 갈등과 대립은 생활 가운데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상황은 단순히 기성종교, 대체종교, 유사종교, 혹은 종교에 대한 기능적 대항물들과도 공존 내지 경쟁하게 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이원규 1992).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적 생활의 양태는 더욱 심각한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사적 영역에서의 종교 기능

다원주의에 의해 초래된 종교의 사사화 현상에 의해 종교가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가 된 것은 종교간의 갈등이 주로 사적인 영역 특히, 가족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의미한다. 한 가족에서도 다양한 종교인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출하는 종교 갈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가족 내의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면, 부부 그리고 부모-자녀 등 가족 및 친척과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건 1992, 이정덕 외 1인 1995).

가족 내의 종교 갈등은 주로 개신교와 불교, 무속 신앙, 무교(無敎) 등의 비기독교인 간의 종교 갈등이다. 개신교가 갈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신교의 보수주의적인 신앙 태도와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에 근거한다(이정덕 외 1인 1995). 각 종교 집단의 배타성을 살펴보면, 불교인 7.5%, 카톨릭 9.5%, 비종교인 7.9%로 나타나지만 개신교의 경우 그 비율이 30.9%나 되어 타종교에 대해 개신교가 가장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이원규 1992), 이것이 기독교 집단이 타종교와의 갈등에서의 주역할을 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한다. 특히, 기독교는 가족을 전교(傳敎)의 통로로 하기 때문에(김성건 1992) 가족의 전교를 큰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족 내의 구성원들의 종교가 다를 경우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적극성을 띄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 신자들은 절이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신도의 조직체가 특정의 절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비하여 걸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이나 노인 불교도들의 종교적 태도는 사업의 번창이나 운수 대통을 비는 기복적인 성향을 띄며 이는 특히 사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운영자의 가족에서 많이 보여진다. 이들에게는 영험한 절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김광익 1992).

부부 사이에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가장이 유교나 무교이며, 부인은 기독교나 불교 신자로 구성된다. 이 관계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은 주로 개신교 신자이며, 이 경우 언제나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종종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보편적인 것은 시부모 중 한 사람이 불교이거나 유교인 반면에 자식 부부는 둘 다 기독교인이거나 그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며, 일반적으로는 불교도인 시어머니와 기독교도인 며느리가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고부 관계에서 갈등은 매우 첨예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덕 외 1인 1995). 이런 경우는 고부간에 상당한 정도의 알력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시어머니들의 종교적 태도는 주로 기복적인, 타력적인 불교적 신앙과 현대적인 서구의 교육을 받은 며느리의 유일신인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고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이때까지 자신이 쌓아 왔던 가족 복지의 체계가 와해된다는 심한 불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며느리는 자신의 기독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전 가족이 기독교도가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그 외의 친족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가족 및 친척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제사와 명절과 같은 특별한 의례 행사하는 모임에서 갈등이 첨예화한다. 한국인에게는 친척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성을 내포한다.

종교 생활은 어떤 중단이든 남편에 비하여 부인들이 더 많은 신자수를 점하고 있다(김성건 1992, 홍욱화 1993). 일반적으로 절이나 교회 등의 종교 조직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여자가 더 독실하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홍욱화 1992)에서 종교 조직의 참여가 높을수록 아노미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회나 절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자아 실천 및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민층의 경우 교회를 통해 정서적, 물리적 지원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했으며, 중류층 이상은 세속적인 성취의 지표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성건 1992).

이와 같이 종교 생활의 행태가 사회적, 가정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현시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원들의 종교가 개인적, 가족적으로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의미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통한 개인적, 가족적인 신념 및 가치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인들로서 기혼 남녀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이 142명(45.8%)이고, 여성이 168명(54.2%)이다. 평균 연령은 42.7세로서 20-39세가 84명(27.1%), 40-49세가 160명(51.6%), 50세 이상이 66명(21.3%)이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가 129명(41.6%), 대졸 이상이 180명(58.1%)이다. 종교 분포는 불교가 71명(22.9%), 천주교가 108명(34.8%), 기독교가 81명(26.1%)이다. 신앙 생활 기간은 평균 36년이 5년 이하가 58명(18.7%), 6년-10년이 72명(23.2%), 11년-15년이 47명(14.5%), 16년-20년이 45명(14.5%), 32년 이상이 74명(23.9%)이다.

2. 측정 도구

1) 종교 생활 척도

연구 대상자의 종교 생활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종교 학자 및 성직자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가치 및 태도 5문항, 종교적 신념 문항 3문항, 가정 생활에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N=310)

인구통계학적 변인		빈도	%
성별	남	142	45.8
	여	168	54.2
	계	310	100
연령	20 - 39세	84	27.1
	40 - 49세	160	51.6
	50세 이상	66	21.3
	계	310	100
학력	고졸 이하	129	41.6
	대졸 이상	180	58.1
	무응답	1	0.3
	계	310	100
응답자의 종교	불교	97	31.3
	천주교	132	42.6
	기독교	81	26.1
	계	310	100
배우자의 종교	불교	71	22.9
	천주교	108	34.8
	기독교	81	26.1
	무교	32	10.3
	무응답	3	1.0
	계	310	100
신앙 생활 기간	5년 이하	58	18.7
	6년 - 10년	72	23.2
	11년 - 15년	47	15.2
	16년 - 20년	45	14.5
	21-30년 이상	74	23.9
	무응답	24	7.7
	계	310	100
월수입	150만원 이하	73	23.6
	150-200만원	81	26.1
	200-250만원	78	25.2
	250만원 이상	75	24.2
	무응답	3	1.0
	계	310	100
직업	전문직	40	12.9
	사무직	82	26.5
	자영업 및 단순노무직	73	23.6
	주부	108	34.8
	무응답	7	2.3
	계	310	100

관련된 3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87로서 매우 양호하였다.

3. 조사 절차 및 분석 방법

질문지 문항의 적절성 파악 및 최종 문항 확정을 위해 각 종교별 신앙인 진위를 가리는 조사를 거쳐,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는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첫 단계는 종교인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 조사이며, 둘째 단계는 첫 번째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종교 및 가정 생활에 관한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기간은 199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 까지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를 작성했다. 본 조사는 1996년 9월 15일부터 30일 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각 종교단체를 방문해 직접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369부 였으며,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319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잘못 표기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Cronbach α , 빈도, 평균, 요인 분석, 일원분산분석, DUNKAN 사후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종교 생활 내용 분석

종교인들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의 차원을 탐색하기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은 3개로 총 변량의 67.9%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1은 4.62의 고유값을 갖으며 전체 변량의 46.2%를 설명하고 있다. '용서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가치·태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유값이 1.13이며 전체 변량의 11.4%를

<표 2> 종교인의 종교 및 가정 생활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표

내 용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h
	가치·태도	종교적신념	가정생활	
용서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83	.12	.17	.75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78	.34	.15	.73
모든 만남의 의미가 깊어짐으로써 가족이 더욱 소중해졌다	.74	.25	.10	.62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나의 소유라기 보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4	.17	.11	.55
가정의 여러 의례를 형식적이 아닌 지극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53	.13	.48	.50
나는 나만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어떤 섭리가 작용한 듯한 느낌이 든다	.13	.87	.12	.74
모든 것은 상호관계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임시적인 것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연기법을 불변의 진리로 확신하고 있다	.24	.85	.17	.67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과법을 믿는다	.37	.61	.30	.66
종교가 가족 결속에 도움이 되고 있다	.19	.14	.82	.80
종교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05	.26	.77	.83
종교를 가진 후 생활 태도가 보다 건전해졌다(술, 담배 줄이기 등)	.48	.04	.51	.60
전 체 변 량(%)	46.2	11.4	10.3	67.9
고 유 값	4.62	1.13	1.03	6.78

설명하고 있다. 본 요인을 각 종교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불교의 내용은 나는 나만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어떤 섭리가 작용한 듯한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은 상호관계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임시적인 것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연기법을 불변의 진리로 확신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과법을 믿는다. 천주교의 구성 내용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만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어떤 섭리가 작용한 듯한 느낌이 든다. 기독교의 경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만

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어떤 섭리가 작용한 듯한 느낌이 든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교적 신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10.3의 고유값을 갖고 전체 변량이 10.3%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가 가족 결속에 도움이 되고 있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가정 생활」로 명명하였다.

2. 종교인들의 종교 및 가정 생활

1) 전체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조사 대상자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가치·태도 요인

<표 3> 조사 대상자의 종교 및 가정 생활 척도 분석

독립 변인		요 인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가정 생활 요인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성 별	남	19.2	3.7	11.57***		12.9	2.1	0.91		11.1	2.9	3.21			
	여	20.3	3.0			13.1	2.0			11.6	2.6				
연 령	39세 이하	19.3	3.4	2.36		12.5	2.1	0.87		11.9	2.9	4.33*			
	40 - 49세	20.1	2.8			13.1	1.9			11.8	2.5				
	50세 이하	20.0	3.8			13.1	2.0			11.2	3.0				
응답자의 종교	불 교	19.8	3.2	30.34***		11.8	1.9	18.33**		11.0	2.7	29.4***			
	천 주 교	20.3	2.6			13.3	1.8			12.1	2.4				
	기 독 교	21.6	2.7			13.8	1.8			12.8	2.2				
신앙생활 기간	5년 이하	19.5	2.6	5.20***		11.6	1.9	13.67***		11.9	2.6	4.25**			
	6 - 10년	20.4	3.0			13.3	1.7			12.3	2.4				
	11 - 15년	20.4	2.5			13.0	1.7			11.8	2.4				
	16 - 20년	20.5	2.8			13.0	2.2			11.8	2.4				
	21년 이상	21.6	2.5	14.0	1.6	12.6	2.3								
수 입	150만원 이하	19.8	3.1	3.62*		12.8	1.9	1.24		12.1	2.1	3.2			
	150 - 200만원	19.4	3.2			13.0	2.1			12.2	1.0				
	200 - 250만원	19.3	3.7			13.3	1.8			10.5	2.3				
	250만원 이하	20.5	2.8			13.3	1.8			13.0	2.3				
직 업	전 문 직	19.8	3.1	3.62*	A	13.6	1.6	1.37		11.4	3.1	1.65			
	사 무 직	19.4	3.2			B	12.8			2.0	11.2			2.7	
	자영업 및 노무직	19.3	3.7			B	12.8			2.5	11.0			3.0	
	주 부	20.5	2.8			A	13.0			1.9	11.8			2.5	

* p<.05 **p<.01 ***p<.001

은 성별, 종교, 신앙생활 기간, 수입,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가치·태도 지향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독실한 종교 생활 행태를 보고한 선행 연구(홍옥화 1994)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 집단이 가치·태도 지향성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적극적이며, 배타성 및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집단이라는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원규 1993). 신앙생활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기간이 길수록 가치·태도 지향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이 경과됨에 따라 가치관이 보다 확고하게 정립됨을 알 수 있다. 수입이 2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가장 가치·태도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소득이 150만원 이하의 집단, 200-250만원 집단, 150-200만원 집단 순으로 가치·태도 지향

성이 낮아졌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 집단의 가치·태도 지향성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및 단순 노무직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의 향상과 함께 적극적인 종교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종교적 신념 요인은 종교와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변인으로 보면, 기독교 집단이 종교적 신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기독교 집단의 적극적인 신앙 생활과 불교 집단의 비적극적인 신행(信行)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신앙생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신앙생활 기간이 6-10년된 집단이 11-20년된 집단들 보다 종교적 신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 생활 요인은 연령, 종교 그리고 신앙생활 기

〈표 4〉 남성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 분석

독립 변인		요 인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가정 생활 요인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연령	39세 이하	18.5	3.6	1.0		12.8	2.0	0.13		10.2	3.1	4.16			
	40 - 49세	19.6	2.7			12.8	2.3			11.6	2.6				
	50세 이하	19.5	3.1			13.0	2.1			11.4	2.8				
응답자의 종교	불교	18.0	3.1	28.0***		11.4	0.8	8.36***		9.5	2.7	33.16***			
	천주교	20.3	2.6			13.2	1.9			12.5	2.1				
	기독교	21.4	3.1			13.6	5.0			12.7	2.1				
신앙생활 기간	5년 이하	19.7	3.0	1.26		11.3	2.2	4.81**		11.3	2.7	1.50			
	6 - 10년	20.0	3.1			13.2	1.6			12.5	2.5				
	11 - 15년	20.1	2.8			13.3	1.7			11.4	2.6				
	16 - 20년	19.7	2.5			12.2	2.3			12.4	2.6				
	21년 이상	21.0	2.2			13.7	2.0			12.4	2.6				
수입	150만원 이하	18.8	3.1	1.35		12.9	1.9	0.12		11.0	2.4	0.93			
	150 - 200만원	19.5	3.1			12.8	2.1			11.2	3.0				
	200 - 250만원	19.9	3.4			13.0	1.9			11.7	2.9				
	250만원 이하	19.9	3.2			12.0	1.9			11.2	2.5				
직업	전문직	19.6	3.5	0.35		13.6	1.6	1.95		11.4	3.1	0.52			
	사무직	19.3	2.9			12.7	2.1			11.3	2.7				
	자영업 및 노무직	19.0	3.9			12.7	2.5			10.8	3.0				

* p<.05 **p<.01 ***p<.001

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 생활에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은 가변적인 가치 정립의 도정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종교 생활이 가정 생활에 반영되는 경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대의 다가지 사회의 혼란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종교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 집단이 가정 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교 집단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을 전교의 통로화하는 기독교인들의 전교관과 관련되어 종교를 가정 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서는 종교적 신념 요인의 경우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신앙생활 기간이 오래될수록 종교에 의해 가정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10년 된 집단이 11-20년 경과된 집단보다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

조사 대상자 중 남성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즉,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그리고 가정 생활 요인은 모두 종교 변인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독교 집단이 가치·태도 지향성, 종교적 성향, 가정 생활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교적 신념 요인만이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생활 기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5년 이하의 집단

<표 5> 여성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 분석

독립 변인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가정 생활 요인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연령	39세 이하	20.0	3.0	0.87		12.9	2.1	1.36		11.4	2.5	1.73			
	40 - 49세	20.5	2.8			13.3	1.9			12.0	2.4				
	50세 이하	20.5	3.6			12.3	1.8			11.1	3.2				
응답자의 종교	불교	20.7	2.8	8.94***		12.1	1.8	16.85***	A	11.7	2.5	7.93***			
	천주교	20.2	2.6			13.5	1.7			11.7	2.3				
	기독교	21.7	3.0			14.6	1.7			10.1	2.4				
신앙생활 기간	5년 이하	19.3	2.3	5.30***	AB	11.5	1.9	13.54***		10.6	2.3	3.79**	A		
	6 - 10년	20.7	2.9			C	13.3			1.8	12.2			2.5	B
	11 - 15년	20.5	2.3			C	12.7			1.7	12.2			2.4	
	16 - 20년	21.2	2.9			C	13.9			1.7	12.2			2.9	
	21년 이상	22.1	2.6			B	14.2			1.3	12.7			2.2	
수입	150만원 이하	19.6	3.0	1.93		12.7	2.0	2.42		11.6	2.4	1.78			
	150 - 200만원	20.5	2.6			13.2	1.8			11.2	2.5				
	200 - 250만원	20.9	3.2			13.4	1.7			12.2	2.5				
	250만원 이하	21.6	3.1			13.0	1.3			12.2	2.2				
직업	선분직	21.0	2.6	0.71		14.0	1.7	0.85		11.8	2.9	0.77			
	사무직	19.6	4.0			13.5	2.1			10.9	2.9				
	자영업 및 노부직	20.1	3.0			13.3	2.3			11.5	2.7				
		20.5	2.8			13.0	1.9			11.5	2.5				

* p<.05 **p<.01 ***p<.001

과 11-15년된 집단이 1-10년, 16-20년된 집단들보다 종교적 신념이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21년 이상된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중 여성 집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성 집단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인 모두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독교 집단이 가치·태도, 종교적 신념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경향성을 띄었으나, 가정 생활 요인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태도 요인에서만 불교 집단이 천주교 집단보다 더 가치·태도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신앙생활 기간이 길수록 가치·태도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 요인은 11-15년된 집단에서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교적 신념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녀 모두 종교에 따라 가치·태도 영역, 종교적 신념 영역, 그리고 가정 생활 영역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특히 기독교 집단이 가장 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신앙생활 기간과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독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 종교에 따른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

(1) 불교 집단

불교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가치·태도 요인은 성별

<표 6> 불교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 분석

독립 변인		요 인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가정 생활 요인				
				평균	SD	F 값	사후 검증	평균	SD	F 값	사후 검증	평균	SD	F 값	사후 검증	
성 별	남	18.0	3.1	17.03***		11.4	2.1	2.16		9.5	2.7	15.82***				
	여	20.7	2.8			12.1	1.8			11.7	2.5					
연 령	39세 이하	19.6	3.6	0.93		11.4	1.9	1.07		10.5	3.0	1.01				
	40 - 49세	19.6	3.0			12.0	2.0			11.0	2.8					
	50세 이하	20.6	2.8			12.2	1.9			11.6	2.3					
배우자 와의 종교	일치	21.1	2.9	2.20		12.2	1.7	8.14***		11.6	2.4	13.12***				
	불일치	19.0	3.8			11.0	2.3			9.4	3.0					
신앙생활 기간	5년 이하	18.9	2.9	2.10		10.8	1.5	4.17**		10.3	2.5	1.66				
	6 - 10년	20.2	2.9			12.4	1.8			11.7	2.7					
	11 - 15년	20.7	3.05			11.8	1.6			11.9	2.8					
	16 - 20년	19.6	2.7			12.1	2.1			10.4	2.3					
	21년 이상	21.6	2.4			13.2	1.6			11.1	3.0					
수 입	150만원 이하	19.6	2.6	0.03		11.8	2.1	0.05		11.6	2.3	2.10				
	150 - 200만원	19.8	3.0			12.2	1.7			10.2	2.4					
	200 - 250만원	19.8	2.9			11.9	2.0			9.4	3.0					
	250만원 이하	18.9	3.8			12.5	2.2			11.9	2.5					
직 업	전문직	18.0	3.8	4.91**	A	12.2	1.3	3.93*	A	8.8	3.0	5.08**	A			
	사무직	19.6	3.2			A	11.8			1.9	A			10.3	2.7	A
	자영업 및 노무직	17.6	3.0			A	9.9			1.5	B			9.4	2.6	A
	주 부	20.8	2.8			B	12.2			1.9	A			11.9	2.5	B

* p<.05 **p<.01 ***p<.001

〈표 7〉 천주교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 분석

독립 변인		요 인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가정 생활 요인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평균	SD	F 값	사후검증				
성 별	남	20.3	2.0	0.1		13.2	1.8	1.06		12.5	2.1	4.30*					
	여	20.3	2.4			13.5	1.7			11.7	2.6						
연 령	39세 이하	20.5	3.2	0.30		13.6	1.5	0.46		12.4	2.2	0.82					
	40 - 49세	20.3	2.5			13.2	1.8			12.2	2.3						
	50세 이하	20.0	2.4			13.3	2.1			11.5	2.9						
배우자와 의 종교	일 치	20.3	2.6	0.08		13.4	1.7	2.12		12.5	2.2	16.98***					
	불 일 치	20.1	2.4			12.8	2.1			10.3	2.3						
신앙생활 기간	5 년 이하	20.0	2.4	0.24		12.3	1.8	3.14*	A	11.5	2.6	0.76					
	6 - 10년	20.4	3.1			13.7	1.5			12.3	2.5						
	11 - 15년	20.0	2.1			13.6	1.3			11.1	1.6						
	16 - 20년	20.3	2.4			13.0	2.1			11.9	2.6						
	21년 이상	19.8	2.3			13.4	1.9			12.2	2.2						
수 입	150만원 이하	21.0	2.5	1.31		13.3	1.9	0.00		12.1	1.9	0.24					
	150 - 200만원	20.2	2.6			13.4	1.5			12.5	2.4						
	200 - 250만원	20.2	2.7			13.4	1.8			12.2	2.1						
	250만원 이하	20.1	2.8			13.2	1.6			12.3	2.2						
직 업	전 문 직	20.3	2.4	0.27		13.6	1.3	1.14		12.7	1.8	1.01					
	사 무 직	20.1	2.7			13.2	1.9			12.3	2.3						
	자영업 및 노무직	20.8	3.0			13.4	2.0			12.5	2.2						
	주 부	20.2	2.6			13.4	1.7			11.7	2.6						

* p<.05 **p<.01 ***p<.001

과 직업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 집단이 가치·태도 지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 집단이 가치·태도 지향성이 가장 강하고, 직종이 전문화될수록 가치·태도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 요인은 배우자와 종교 일치성 여부와 신앙생활 기간, 그리고 직업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하는 집단보다 종교적 신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앙생활 기간이 경과할수록 종교적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결과는 가치·태도 요인의 경우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가정 생활 요인은 성별, 배우자와의 종교 일치 여부, 그리고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 집단이, 그리고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이 가정 생활에 종교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변인으로는 주부 집단이 가정 생활에 종교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직종이 전문화 될수록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교 집단은 여성들이 가치관이나 가정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불교 신자의 대부분이 여성들로 구성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가정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통해 부부간의 종교의 일치가 개인이나 가정 생활에 많은 변수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천주교 집단

천주교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종교적 신념, 가정 생활 요인에서만 유의성이 추출되었다.

〈표 8〉 기독교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분석

독립 변인		요 인		가치·태도 요인				종교적 신념 요인				가정 생활 요인			
				평균	SD	F 값	사후 검증	평균	SD	F 값	사후 검증	평균	SD	F 값	사후 검증
성 별	남	21.4	2.5	0.14		13.6	1.9	0.96		12.7	2.0	0.31			
	여	21.7	3.0			14.0	1.7			13.0	2.3				
연 령	39세 이하	21.0	3.0	1.56		13.6	2.2	1.91		12.7	2.4	0.35			
	40 - 49세	21.6	2.8			14.0	1.7			13.1	2.0				
	50세 이하	22.4	2.3			14.3	1.2			12.6	2.1				
배우자와 의 종교	일 치	21.9	2.6	15.3***		24.0	3.4	0.01		13.2	1.9	25.07***			
	불 일 치	18.3	1.9			24.1	1.2			9.6	2.1				
신앙생활 기간	5 년 이하	19.3	2.7	3.57*		11.6	2.3	11.00***	AB	10.8	2.6	3.76**	AB		
	6 - 10년	20.9	2.7			13.8	1.3		C	13.0	1.6		C		
	11 - 15년	20.5	1.6			12.3	2.1		C	11.7	3.2		AB		
	16 - 20년	21.6	3.3			14.7	0.5		B	13.7	2.5		B		
	21년 이상	22.5	2.4			14.6	0.9		B	13.3	1.52		B		
수 입	150만원 이하	20.5	3.1	5.61**		13.3	2.1	1.46		12.6	2.6	0.85			
	150 - 200만원	21.4	2.4			13.9	1.6			12.3	2.3				
	200 - 250만원	23.0	2.1			14.2	1.3			13.2	1.3				
	250만원 이하	21.7	2.1			14.1	1.3			13.1	1.3				
직 업	전 문 직	21.7	2.4	0.66		13.8	1.5	0.02		13.0	2.0	0.23			
	사 무 직	21.0	2.9			13.8	1.8			12.4	2.0				
	자영업 및 노무직	21.4	2.7			13.8	2.0			12.9	2.4				
	주 부	22.1	2.9			13.7	1.7			12.9	2.3				

* p<.05 **p<.01 ***p<.001

종교적 신념 요인은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신앙생활 기간이 6-15년인 집단에서 종교적 신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정 생활 요인은 성별, 배우자와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 집단이, 그리고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이 가정 생활에 종교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 집단

기독교 집단의 종교 및 가정 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치·태도 요인은 배우자와의 종교 일치 여부와 신앙생활 기간, 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이 가치·태도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앙생활

기간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가치·태도 지향적인 경향을 띄었다. 그리고 수입이 높을수록 가치·태도 지향적이며 특히 수입이 200-250만원인 집단이 가장 가치·태도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 요인은 신앙생활 기간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가치·태도 지향적인 경향을 띄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정 생활 요인은 배우자와의 종교 일치 여부, 그리고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과 신앙생활 기간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가정 생활에 종교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종교 및 가정 생활을 살펴본 결과 주된 변인을 성별, 종교, 신앙생활 기간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관계없이 여성 집단, 배우자와 종교가 일

치하는 집단,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집단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의 특징들 중 하나인 다가치 사회를 배경으로 종교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 체계를 다루는 것이다. 종교의 기능에 대한 탐구는, 종교 인구의 세계사적인 양적 팽창과 헤아릴 수 없는 다종교, 다교파 사회를 형성한 우리 나라 현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사회적 주제이다.

생활 철학으로써 가족의 행동을 이끌어 주던 有形·無形의 家訓이 사라지면서 가족을 통솔할 심리적 지주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 가족에게 넓은 의미의 종교는 그 가정 이념 체계의 주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의 量的 팽창에 따른 質의 문제 및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종교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종교 또는 종파간의 사회적 마찰은 물론 가족내 종교 갈등으로 인한 가족간의 마찰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고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지닌 종교가 종교적 신념 및 인생 전반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 그리고 가정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 3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종교인들과의 인터뷰 및 종교 학자와 성직자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아 적도를 제작하였다. 본 척도를 사용하여 종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내용 및 가치 지향성에 대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종교 집단에 따라 조사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종교 생활은 가치·태도, 종교적 신념, 가정 생활의 3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치·태도 영역은 여성, 기독교 집단, 신앙생활 기간이 더 오래 경과된 집단에 있어 삶 전반에 관용적,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 지

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 영역은 기독교 집단이 가장 강하며, 신앙생활 기간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다. 가정 생활 영역은 보다 젊은 층과 기독교 집단,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 경과된 집단들이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 남녀 모두 각 종교에 따라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독교 집단이 가장 강한 긍정적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천주교 집단, 불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정 생활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3. 각 종교 집단 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에서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 종교인들은 삶 전반에 대한 가치·태도, 가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 종교의 신념 체계에서 바람직한 지혜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치·태도, 종교적 신념, 그리고 가정 생활 영역에서 긍정적인 경향은 기독교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기본 교리의 차이 및 적극적인 성향 그리고 종교 기관에서 주어지는 종교 교육에 의한 결과로 보여진다.

종교적 영향력은 여성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홍옥화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종교는 여성들에게 가정 밖의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앙생활 뿐 아니라 사회 봉사 활동 및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여성의 고급 인력은 증가하고, 가정에 쓰는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낮은 자아 정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집단이 가치·태도 및

종교적 신념, 가정 생활에 보다 많은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결과로 미루어, 종교의 일치는 곧 가정 이데올로기의 일치로서 가정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에서 가정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학습 능력이 높은 보다 젊은 나이에 종교 교육이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젊은이들에 대한 종교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각 종교 기관에서도 종교적인 이념이 가족 생활에 적용되는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가족 이념 형성에 종교라는 신념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탐색하는 연속적인 연구로서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약화되는 가족의 응집력에 종교 변인이 어떻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권규식(1983). 한국 종교와 사회 변동의 특수성 연구. 현대 한국 종교 변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2) 고병익(1989).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 한국의 시민강좌 제 4집. 서울:일조각
- 3) 길희성(1997). 철학과 미래문화-21세기의 종교: 새로운 영성을 향하여. 철학과 현실 1997년 가을호. 철학과 현실사
- 4) 김광억(1992). 도시중산층의 도시생활. 도시 중산층의 생활문화. 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동 연구소
- 5) 김성건(1992). 한국 종교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일고찰.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한국사회사 연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 6) 윤이흠(1982). 문화변동과 다종교 사회의 문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 회편. 서울:법문사
- 7) ——— (1984). 한국 종교와 다종교 사회의 문제. 사상과 정책 여름호
- 8) ——— (1986). 종교의 갈등과 화해의 논리. 한국 종교 연구 I. 서울:집문당
- 9) 이원규(1992).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성서연구사
- 10) ——— (1993). 해방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 연구. 현대 한국 종교 변동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성남:동연구원
- 11) 이정덕, 전미경(1995). 가족내 종교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2호
- 12) 정진홍(1990). 종교적 광기. 조선일보 1990. 2. 20
- 13) 정창수, 김신열(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제27집
- 14) 최보식(1994). 사이비 종교. 조선일보 1994. 2. 22
- 15) 통계청(1991).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통계청
- 16) 홍옥화(1994). 한국여성의 아노미와 종교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8집